

시나리오 Ver.2.3

연화(가제)

The Nest

20210401

연출 / 각본 명시경

S1. 지하철 역 / 낮

정장 차림의 남성의 뒷모습. 남자가 개찰구를 통과해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손목시계를 보며 빠르게 걷다가 오른쪽 바지주머니를 뒤지는 남성.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동전 세 개가 덩달아 떨어진다.
백 원 둘에 오백 원 하나.
아, 씨... 남성, 급하게 동전 줍는다.
손바닥에 동전 쥐고 가던 길 가려는데, 출구로 나가는 길 구석 바닥에 연화가 앉아 있다.
급하게 적선하듯 연화 앞에 동전 떨구고 지나가는 남성.

카메라는 더 이상 남성 따라가지 않고 연화 앞에 머무른다.
자기 앞에 놓인 동전을 미동 없이 바라보는 연화.

암전 속에 나타나는 타이틀.

< 연화 >

연화가 앉아 있던 맨 바닥. 연화는 없고 동전이 쌓인 채 덩그러니 놓여 있다.

S2. 지하철 역 / 저녁

(Black&White)

연화가 필름카메라 셔터 버튼을 누른다.
‘딸깍’ 하는 버튼소리는 들리지만 셔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연화가 뷰파인더에서 눈을 떴고 앞을 본다. 연화의 눈 클로즈업.
카메라 스트랩을 목에 걸고 어깨에 맨 메신저백을 뒤지는 연화.
엽서 크기로 두툼한 갈색 봉투 꺼낸다.
봉투에는 흑백 사진들이 그득하다.
그 중 개찰구가 찍힌 사진을 꺼내고, 팔을 쭉 뻗어 금방 뷰파인더로 바라보던 곳에 대본다.
이리 저리 사진을 움직여 보고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확인하는 연화.

펜을 꺼내 뒷면에 무어라 적는다.

다시 봉투에 사진을 넣고 봉투도 가방에 도로 넣는 연화.

가방을 잠그자마자 표정을 움찔하며 배를 움켜쥐는 연화.

지하철 역 화장실로 불편한 얼굴 한 채 걷는다.

입구 앞 껌과 생리대가 진열된 자판기를 지나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연화.

S3. 지하철 화장실. 저녁.

어두운 지하철 화장실.

세면대를 받치고 서 있는 연화.

이리저리 늘어진 머리카락 정리하는데, 목에 대롱대롱 걸려 있던 카메라와 가방을 오른편 선반에 대충 올린다.

느린 걸음으로 두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가 문 잠그는 연화. 빨간 '사용중.' 표시.

연화가 그 안에서 부산스럽게 소리를 내다가, 위로 둔탁한 발소리가 겹친다.

일순간 조용해지는 연화.

곧 옷깃 나부끼는 소리와 작은 금속 마찰음 이어진다. 다시 멀어지는 발소리. 정적.

연화가 별걱 변기 칸 문을 열고 세면대 쪽을 바라본다.

바로 텅기듯 선반으로 달려가지만,

선반 위에는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카메라는 온데간데 없다.

가방을 들춰보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행하다. 연화가 산만하게 주변을 더듬거린다.

>>화장실 입구

화장실을 나와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 연화. 불안에 차서 금방이라도 크게 소리칠 것 같은 표정이다. 주변 소음 고조되면.

<<

무표정의 연화 얼굴. 눈은 어느 곳에도 초점이 잡혀있지 않다.

손에 비누거품을 가득 칠하는 연화. 손가락과 손톱 사이사이를 강박적일 수준으로 꼼꼼하게

비누칠한다.

한참 거품을 내다가 흐르는 물에 거품 씻어내는 연화.

연화가 이번에는 가방에서 칫솔세트를 꺼낸다.

거울을 마주보고 양치를 하는 연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이 구석구석 칫솔질한다.

그러다 돌연 칫솔질 멈추고 거울 속 자신 응시하는 연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정적.

칫솔 든 손으로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하는 연화. 속이 뒤집혀 나올 듯한 소리를 낸다.

어두운 화장실에 울리는 연화의 헛구역질 소리.

S4. 지하철 역 공중전화 / 저녁

험한 역사 통로 벽에 걸려 있는 은색 공중전화.

연화가 왼손에 수첩 하나 펼쳐든 채로 수화기를 붙들고 있다.

연화 (수첩 힐끗거리며) 여보세요? (···) 네, 저 연화인데요.

똑. 전화가 끊긴다. 연화 잠시 수화기 쳐다보다가,

수화기를 걸어 놓고 수첩에 책갈피처럼 꽂혀 있던 볼펜을 집어든다.

남은 수첩에는 “010-9582-···”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들이 무작위로 쪽 적혀 있고, 그 중 위에서 네 번째 번호까지는 취소선이 그어져 있다.

그 밑 번호에 그어지는 취소선.

연화가 펜을 몇 번 흔들고 딸깍 집어넣는다.

수첩에 적힌 다음 번호를 보고 공중전화 다이얼을 누르는 연화. 달각. 달각. …….

(안내음성)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

연화가 다시 취소선을 긋는다. 다시 다이얼을 누르는 연화. 뒤로 사람들이 한 무리 지나간다.

연화 (···) 여보세요? (···) 안녕하세요, 저 연화인데요. (...) 네. 대중고등학교 졸업한….

(수화기 너머) (···)

연화 네? ... 아... 죄송합니다.

정적. 상대방 끊으려고 하는데,

연화 저기, ... 죄송한데 혹시 지금 몇 시예요?

(수화기 너머) (...)

연화 아 여섯 시 이십 분이요? (공중전화에 대고 목례하며) 감사합니

말 끝나기도 전에 끊어지는 전화.

전화번호 위에 취소선이 지익 그어진다.

연화가 손가락으로 수첩 종이를 좌르륵 펴려다가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는 내지들이 날카로운 종이 소리를 낸다.

다시 다이얼을 누르는 연화.

S5. 교실 (회상) / 낮

텅 빈 교실에 책걸상이 나란히 놓여 있고, 창가 쪽에 연화가 허리 굽히고 앉아 있다.

가로로 쏟아지는 밝은 햇빛.

연화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종이에 색연필로 라일락 꽃다발이 그려져 있다.

연화가 무표정한 얼굴로 색연필을 칠한다. 색 이름은 연화의 손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반짝이는 연화의 눈.

(수정) 예쁘다.

불쑥 튀어나온 수정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는 연화. 한 손으로 종이를 슬쩍 밀어낸다.

의자 끌어와 연화 곁에 앉고 멧쩍게 웃는 수정.

수정 집에 안 가?

연화 어. 좀 이따가.

연화가 빨간 색연필로 꽃다발 윤곽을 서걱서걱 칠한다. 가만히 바라보는 수정.

수정 생각해봤어?
연화 아. 그... 동아리?
수정 응!
연화 (망설이다가) 근데 나, 사실...

연화가 수정쪽으로 얼굴 돌린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말없이 연화 바라본다.
어색함에 다시 그림에 얼굴 박는 연화.

수정 사실 뭐?
연화

수정 여전히 연화를 지긋하게 보고 있다.

수정 (대답 기다리다가 그림 보고) 그 빨간색, 웬지 너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연화 몰라, 그런 거.

새가 창밖을 지나가며 지저귐다.

수정 응?
연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안 보여서 모른다고. ... 그 색을.

살짝 당황한 수정 얼굴.

>>다시 현재.

전화기 다이얼을 힘주어 누르는 연화.

수첩에 그어지는 줄.

<<

수정의 입모양이 움직인다. 대사는 뮤트.

연화가 색연필 든 손을 멈추고 수정을 올려다본다. 아주 얇은 미소 지어지려는 찰나.

(Color)

연화 책상에 놓인 종이에 색연필로 일관성 없이 덧칠된 꽃다발이 있다.
무지개 빛깔이 전부 들어간 그림. 인상주의 그림 같은 느낌 풍긴다.

S6. 지하철 역 공중전화 / 밤

(Black&White)

연화가 공중전화 다이얼을 누르려다가 멈춘다.
바지주머니를 뒤지는 연화. 가방 속도 뒤져보지만 동전은 없다.
뒷머리를 긁적이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연화. 그러다가 우뚝 멈춘다.

무표정으로 먼 통로를 바라보는 연화.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민한다.
연화 결심한 듯 공중전화 곁을 떠난다.

종전에 남자가 동전 내려놓았던 바닥을 구석구석 뒤지는 연화.
의자, 모서리, 자판기 아래까지…. 바닥에 얼굴을 박을 기세다.

S7. 골목-수정 집 / 밤

(Color)

간간이 가로등이 놓인 골목. 파란 휴대폰 불빛이 이어폰 낀 수정의 얼굴을 비춘다.
수정 입꼬리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다.
휴대폰이 돌연 확 꺼지며 어두워지는 수정 얼굴.
수정이 휴대폰 이리 저리 만져보더니 짜증난 표정으로 이어폰 뺀다.

수정의 뒤에서 신음과 외침 중간쯤으로 들리는 이상한 목소리가 울리고,
휴대폰 주머니에 넣다가 멈춰 뒤돌아보는 수정.

멀리서 벽을 짚고 고개 떨군 취객의 실루엣이 보인다. 키 작은 중년 남성 체격.

수정은 이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 걷기 시작한다.

걸으면 걸을수록 골목은 점점 조용해지고 두 명의 발소리만 점점 겹치며 커진다.

작게 시작해 고음에서 고조되는 음악.

안절부절하는 수정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서 꺼내 전화하는 시늉을 하려 해보지만

뒤로 살짝 눈치를 보더니 도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찔러 넣는다.

수정 뒤로 웬 휘파람 소리가 골목으로 울리며 퍼진다. 불안정하고 이상한 멜로디.

수정이 크게 한 번 숨을 들이쉬더니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멀어지는 실루엣.

집 앞에 도착한 수정. 급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다. 뽁. 뽁. 뽁. ...

비밀번호가 한 번 틀리는 바람에 도어락은 삐빅-, 하는 비프음을 낸다.

천천히 다시 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수정.

S8. 수정 집 안 / 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긴다.

길게 한숨 내쉬는 수정. 대중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선다.

소주병이 깨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실. 수정이 그 장면 보고 발아래를 살핀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화장실 문 앞에 서는 수정. 문고리를 돌려보지만 잠겨 있다.

수정 ……안에 있어?

화장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방향을 틀어 방에 들어가는 수정.

책상 위에 놓인 충전기에 휴대폰 연결해 놓고 가방 내려놓는 수정.

가방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리듬으로 버벅대는 소리.

곧 문이 열리고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 밖에서 들었던 멜로디와 거의 비슷하다.

수정이 방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잠근다.

침대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얼굴 쓸어내리는 수정.

두 손 모아 턱 받히고 방구석 바라본다.

방구석에 커다란 등산 가방 하나와 흰 봉투가 놓여 있다.

돌연 휴대폰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린다. 책상 쪽을 뉘 돌아보는 수정. 눈이 반짝 빛난다.

S9. 공중화장실 / 낮

(Black&White)

연화가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있다. 입술을 손으로 만져보는 연화.

거울을 바라보고 멀리 선다.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리 저리 자신을 비춰보는 연화.

연화 (손 어설피게 들어올리며) 오랜만이다. 안녕. (조금 높은 톤으로) 안녕?

가방과 옷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더니 윗옷을 휘어잡아 킁킁 냄새를 맡아 본다.

수정과 연화의 떠들썩한 목소리 천천히 오버랩 되고.

S10. 편의점 야외 테이블 / 밤

야외 테이블에서 환히 웃고 대화하는 수정과 연화.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맥주 두 캔 올라 있다.

수정 전엔 편의점 가자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더니.
연화 넌 좋아했잖아.
수정 (웃는다) 그건 그런 거고. 넌 그렇게 연락 한 번 없어도 되는 거야? 속상할 뻔 했어.
연화 오늘 이렇게 했잖아, 보고 싶어서. 전화번호 기억하느라 더 혼났다, 내가.
수정 사실 전에 나도 너한테 전화한 적 있었는데. 번호 바꿨더라? 말이라도 해주지.
연화 아, ... 어. 바꿨어. 작년 말에.
수정 (기다리라는 손짓하며) 잠만 기다려봐.

수정이 휴대폰 집어든다.

연화 (급하게 수정 눈치 살피며) 아직 거기 살아?
수정 (시선 연화로 옮기고) 집? 그럼. (휴대폰 내려놓으며) 이제 지긋지긋해, 아주.
연화
수정 넌? 너도 아직 거기 다녀?
연화 ... 거긴 19살 되면 나와야 돼.
수정 진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
연화 수정아.
수정 응?
연화 혹시 딱 오늘 밤만. 너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수정의 표정이 경직된다.

연화 우리 친구로 지낸지가 몇 년인데, 니네 집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수정
연화 맨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만 하고.
수정 ...

연화가 수정의 눈치를 살핀다. 입을 꼭 다물고 어색하게 쓴웃음 짓는 수정.

연화의 표정도 덩달아 굳는다. 금세 식는 분위기. 수정 얼굴을 눈으로 훑는 연화.

연화 (할짝 웃으며) 야, 왜 심각하게 고민해! 그래, 오늘은 좀 시간이 늦긴 했지?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랬어. 진짜로.

수정 알아. (다시 웃으며) 그리고 넌 옷이나 좀 사 입어라. 그 옷 졸업식 때 입고
왔던 거 아냐?

연화 ?

수정 (장난투로) 너 또 그림 그린다고 돈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연화 (표정 관리 어렵다) 내가 애냐? 이제 그림도 안 그려.

수정 (못 믿겠다는 표정) 네가? 왜?

연화 대신!

연화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수정에게 건넨다.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는 수정.

수정 (사진에 눈 고정된 채) 내가 찍은 거야?

연화 어때? 봐줄 만 하지?

수정 오….

연화 왜?

수정 그냥. 내가 보는 세상은… 이렇구나, 싫어서.

연화 멋있단 얘기지?

수정 어. 신기해. (웃는다) 난 어떻게 보여?

수정이 어설픈게 꽃받침 한다. 연화가 수정 눈 말없이 본다.

연화 좋아.

수정 뭐야, 무슨 대답이 그렇게 애매해.

연화 (침묵하다가) 넌 내가 좋아?

수정 당연하지.

연화 왜 좋아?

수정 글썸? (캔 바라보다가) 그런 게 중요하냐.

편의점 공기가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아 고요하다.

수정이 맥주를 훌쩍거리다. 곧바로 연화가 맥주 캔 들고 훌쩍인다.

가만히 테이블 바라보는 연화.

S11. 공중화장실 / 밤

연화가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옷의 냄새를 맡아 보고 있다.

답답함에 찡그린 얼굴을 거울에 바짝 들이밀어 구석구석 살피는 연화.

한 발짝 멀어져 거울 바라보는 연화 얼굴 클로즈업. 눈썹 꼬리가 축 내려가고.

연화 뒷머리 쪽으로 카메라 돌며 원테이크 트랜지션>>

S12. 지하철 역->출구(밤) / 밤

>>카메라가 연화 뒷머리 지나 한 바퀴 돌고 연화 비추면, 심하게 흔들리는 연화의 눈.

지하철 역 통로 구석에서 수정이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다.

같이 흔들리는 수정의 눈.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갈색 봉투와 그 주위로 흩뿌려진 사진들을 줍다가 그대로 멈춰 있다.

바닥에는 접힌 세제 박스 조각이 깔려 있고 그 구석에 작은 담요가 동글게 구겨져 있다.

연화가 재빨리 고개 돌려 수정 못 본 척 사진들을 손톱 끝으로 주워 담는다.

이리저리 떨리는 연화의 손. 수정이 마지막 사진 줍기 위해 수그러 손 뻗지만 연화가 짹짹 낚아채 손아귀에 모은다.

사진을 뒤죽박죽 모아 대충 가방에 쑤셔 넣는 연화.

연화가 벌떡 일어나 수정을 등진다.

수정과 연화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 연화 눈에 열게 고인 눈물이 반짝인다.

어금니 꼭 깨문 표정으로 갈등하는 연화.

최대한 소리 없이 숨 쉬며 눈 지그시 감는다.

연화, 수정과 눈 마주치지 않은 채 앞으로 걸기 시작한다.

연화가 4번 출구를 향해 걷는다. 머리카락 좌우로 흔들리는 뒷모습.

카메라도 흔들리며 연화 뒤를 따른다.

개찰구 앞. 연화가 자리에 잠시 멈춰있다. 지하철 도착하는 소음.
다시 출구를 향해 걷는다.

공중전화 앞. 연화가 다시 자리에 멈춘다.
다시 출구를 향해 사람을 뚫고 걷는다.

4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 앞. 또 멈춘다.
다시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오른다. 숨을 헐떡이는 연화.

계단을 올라 출구. 연화가 걸음을 멈춘다.
연화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숨에 차 흔들리는 연화의 몸.

Cut Out.

(Color)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하철 출구 정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없다.

END.